

10억 이상 시설물 공공디자인 적용

디자인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시가 문화수도에 걸맞는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공디자인정책 추진방안'을 확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정부의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공공디자인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시는 우선 공공디자인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조형예술·디자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공공디자인 총괄추진단장'으로 위촉해 관련 업무 공무원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총괄추진단장은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 진행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방안 확정

민간 전문가 영입 태스크포스팀 구성 전남대 후문·문화전당 주변 시범 시행

안이 투입되는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총괄 지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의 효과 및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학생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전남대 후문 구간

에 대해 가로등과 보안등, 버스승강장, 가로시설물, 인도 및 골목길,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시범 실시한다. 이어 열주체육관~운천저수지 구간과 아시아문화전당 주변도 시범사업 대

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 15일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기본계획에는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현황분석, 향후 방향과 목표 설정, 권역별·시설물별 가이드라인과 표준 디자인 개발, 지역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8

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그동안 7회에 걸쳐 22개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심의제도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시설물의 과도한 디자인을 배제해 공사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랑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교육도 병행한다. 공무원교육원에 공공디자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하반기부터 시와 자치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은 구도심 리모델링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문화적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U대회 유치, 이것만은 지키자

기초질서

쓰레기·광고 전단 투기 근절 산뜻한 도심환경 보여주자

지난해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광주시와 유관기관들은 대대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반짝 단속'에 '반짝 효과'로 그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해 오물투기·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1천31명으로 전년 707명에 비해 45.8%나 증가했다.

이중 오물투기 사범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연장소 흡연 303명 ▲인근소란 135명 ▲음주소란 82명 ▲기타 200명 순이었다.

오물투기 등 생활주변 불편을 초래하는 4개 항목이 지난해 기초질서 단속 건수의 80.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질서 위반 사범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벌인 집중 단속 때문이다. '반짝 단속'효과가 컸던 것이다.

최근 광주 시내 곳곳의 모습은 '문화수도'의 그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불법 광고 전단지들이 거리를 뒤덮고, 도심 구석구석에는 쓰레기가 방치되고 일쑤다. 오물투기, 불법 광고물 살포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시민불편도 적지 않다.

경찰은 일회성 단속 때문에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보고 기초질서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기초질서 위반행위 중 사회적 비용이 많고 일선 경찰행정에 지장을 주는 대표적 위반

행위인 ▲음주·인근 소란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을 중점 단속태마로 선정해 광주청 주관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도립·군립공원, 도시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훼손 및 취사행위, 유원지 등 관광지 쓰레기 투기 및 고성방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생활주변의 불법·무질서 등 기초질서 정착이 곧 국가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 사회 진입의 시발점"이라며 "자치단체와 협의, 기초질서 위반 다발지역 또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1~2개소를 선정, 집중관리하고 중점관리지역의 관할지구대를 거점 근무지로 지정·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웃으면 병도 나아

남구보건소 '웃음 치료' 특강

광주시 남구보건소가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웃음 치료 요법'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김영식 웃음요가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와 웃음이 암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효과를 설명하며 악수웃음, 감강술래 웃음, 어깨 부딪히기 웃음 등 각종 웃음치료요법을 전수했다.

김 소장은 "이 치료법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몸과 마음에 다양한 방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 결과 특히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살짝 웃는 것만으로는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일수록 의도적으로 크고 강하게 마음으로부터 웃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필성기자 kps@



23일 광주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웃음 치료 요법' 특강에 참석한 환자와 그 가족, 시민 100여 명이 특강을 들으며 활짝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19시민수상구조대 189명 모집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 봉사자' 189명을 5월 말까지 모집한다.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송산유원지와 황룡강 등 9곳에서 수상안전 감시와 응급처치, 119 구조·구급대원 보조활동을 벌이게 된다.

수난구조요원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난구조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과목을 이수한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췄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한 경우도 가능하다.

선발된 대원들은 6월 중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기본 응급처치 요령과 물놀이 안전지도 등의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배치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소방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여성 CEO 리더십교육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송화)는 '여성 CEO를 위한 리더십교육'을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5주간 상무지구 센터내에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CEO의 변화주도 리더십,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부자되는 삶의 방식, 기획부터 의사결정까지 등의 주제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된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여성발전센터(062-383-5758)에서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2만원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맛 따라 멋 찾아!

1등맛집

숙물갈비 · 영원전문집

화개원

석암돌솥밥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초당한정식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유진정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해피민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